

「교수 성폭력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」의 그 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

수신 : 교수 성폭력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

발신 : 여/성/주/의 제10대 총여학생회(준)

날짜 : 97/12/23

김균진 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지 이제 1달이 넘었다. 김균진 교수 사건이 일단락(?) 마무리 지어지면서 대책위 활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 후 과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.

대책위원회의 목표

- ▶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이 중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낸다.
- ▶ 김균진 교수의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그 교수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한다.
- ▶ 학교 당국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도록, 학교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한다.
- ▶ 장기적인 안목에서, 성폭력 자치규약의 기반을 마련한다.

대책위원회의 활동은 김균진 교수가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. 이것은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 했을 때, 그 교수 한 사람만을 '매장'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 김균진 교수의 사과는 분명 문제의 '해결'이 아니다.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대학의 가부장성을 알려내면서 성폭력 자치규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.

진행 과정

- ▶ 11월 중순, 여성문화포럼 팀에서 김균진 교수의 만행에 대한 자보가 상대에 붙었다. 이 일이 여성주의 선본에 알려지고 여성주의 선본에서도 자보를 붙였다.
- ▶ 선본장 회의에 제안이 들어갔고, 동의하는 선본끼리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정하였다.
- ▶ 교수가 수업 시간에 '사과'를 했으나,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.
- ▶ 11월 말, 총여학생회과 몇몇 자치 단체들은 초동 모임을 가졌으며,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.
- ▶ 중앙운영위원회/각 단대 학생회로 제안이 들어갔다.
- ▶ 11월 30일, 첫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다.
- ▶ 성명서를 작성하여 총여학생회 회장단이 김균진 교수를 만났다. 시험 기간에 다시 사과할

것을 약속 받았다.

▶학내 성폭력, 이 중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내는 자료가 단대마다 붙었다.

▶이후 약 2-3 차례 더 만나면서 그 간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.

▶그 동안 학교 당국은 비상이 걸려 김균진 교수에게 다름대로의 '재제'를 걸었다고 하며, 교수 회의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안다.

▶시험 기간에 교수가 다시 사과를 했다고 한다.

이렇게 합시다.

▶김교수의 2차 사과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, 김균진 사건을 일단락 맺을 것인지를 판단합시다.

▶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시다.

▶그 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2차 자보를 씁시다.

2차 사과
인사
2차